

2023

설날 가정예배(추도예배) 순서지

묵상기도 _____ 다같이

신앙고백 _____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찬송 _____ 다같이

- 1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 2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 3절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 4절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 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경봉독 _____ 느헤미야 8장 6 ~ 10절 _____ 다같이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설설교 _____ 인도자(뒷면참조)

합심기도 _____ 다같이

주기도문 _____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예문

하나님 아버지,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중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시고 삶의 지침이 되게 해 주셔서 더 예수님을 닮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예문

오늘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은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 후 나팔절로 모였습니다. 유대인은 7월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신년으로 지켰는데, 이 날 나팔을 불어 새해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합니다.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새해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새해 첫날 말씀 앞에 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1. 이스라엘은 말씀 앞에 울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와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가정도 말씀 앞에 우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기 위해 버리고 포기할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핍시다.

2.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울고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느8:10) 느헤미야는 말씀 앞에 회개하며 울고있는 이스라엘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옛적에도 지금도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실패를 은혜로 갚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해를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은혜로 바꾸실 것입니다.